불국사 영지에는 아사달·아사녀의 슬픈 전설이…

영지(2)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는 영지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야기인즉슨 불국사에 석가탑을 만들고 있는 아사달을 찾아 온 아사녀가 불국사 스님이 일러준 대로 못에서 탑의 그림자가 비치기를 학수고대하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탑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아 못에 몸을 던져 죽었고, 탑 조성을 마친 아사달 역시 아사녀를 따라 못에 빠져 죽었다는 애달픈 사연이다.

경주사람들은 불국사가 자리 잡은 토함산이 멀리 보이는 방어리와 괘릉리에 걸쳐 있는 영지못을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를 간직한 영지로 보고 있다. 영지주변에는 아사달이 아사녀를 그리며 조각했다는 석불좌상도 있다. 그러나 이 영지는 불국사 석가탑의 그림자를 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불국사 구품연지를 영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재 구품연지는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발굴당시 유구에 고인 빗물에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특히 구품연지 상단에 지은 건축물이 범영루(泛影樓)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구품연지에 범영루의 그림자가 투영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 불국사구품연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감흥을 기록한 글을 보면 구품연지가 영지로서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먼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쓴 '불국사'라는 시에는 "돌 다듬어 만든 계단 작은 연못 누르듯, 높고 낮은 누각들 잔잔히 아롱지네"라는 구절이 있다. 초의 선사가 1817년에 쓴 〈불국사회고〉에 실린 시에도 "승천교 밖의 구련지에, 칠보누대 아롱지고, 무영탑의 그림자를 보노라니, 아사녀가 와서 보는 듯하구나"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을 보면 구품연지가 연지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영지로서의 기능도 더불어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으로 볼 때, 불국사 구품연지는 탑영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사달 조성 석탑있는 방어리 보다
구품연지가 설화 간직한 못 일수도
김시습·초의 스님 글 가능성 보여
구품연지 복원하면 탑 비출 듯

멀리 지리산 칠불사에도 영지가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하동지'에는 칠불사에 대하여 "칠불암(七佛庵)'은 삼신동(三神洞)에 있는데, 옛 이름은 운상원(雲上院)이다. 또 진금륜(眞金輪)이라고도 부른다"고 적고 있다. 칠불사 영지는 절 앞마당에서 150m 정도 아래 길가에 있는데, 둥근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한때는 연못가에 호랑이가 출몰하기도 할 정도로 갈대가 무성했었다고 하며 6·25전쟁 이후에는 매몰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곳은 허황옥(許黃玉: 김수로왕의 왕비)이 절에서 수도하고 있는 일곱 아들이 보고 싶어 운상원을 자주 찾았지만 오빠 장유화상이 "왕자들의 불심을 어지럽힌다"고 하여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가 하루는 "네 아들들이 성불(成佛)했으니 만나 보라"며 이 못을 가리키자, 황금빛 가사를 걸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곱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설화의 내용대로라면 칠불사 영지는 창건당시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역사성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단지 〈하동부읍지〉에 "칠불암 앞에 영지가 있다"고 적고 있어 칠불사 영지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존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둥근형태가 원형이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없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원형의 못은 통도사 영산전 앞에 있는 원형지가 있으나 이 못 역시 통도사에 오래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칠불사에는 요사채 앞에 새로 만든 원도방지형(圓島方池形) 못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만든 것이다.

칠불사 경내에 새로 만든 원도방지형 못

구품연지 발굴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하동부읍지에 전해지는 원형으로 만든 칠불사 영지

아사달이 아사녀를 그리며 만들었다는 석불좌상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는 영지

구품연지 발굴당시의 사진

무병장수의 꿈 마침내 현실화!!

명의(名醫), 부활하다!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전통천연물의학大백과–

2012년 최신간

권혁세(한국민간요법연구회장)저/ 전3권/ 4×6배판/ 컬러판/ 양장본/ 3,600쪽/ 통케이스/
출간홍보 보급가 32만원(정가 40만원)/ 현금할부 11만원×3회/ 신용카드 가능

세상 수많은 질병에 대한
천혜의 해법, 모두 찾았다!

어쩌면 밟고 지나쳤을 작고 소박한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놀랍도록 절묘한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해(圖解)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다양한 이용법 등
전통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이 응축된 경탄할 치유력의 천연의술을
누구나 손쉽게 가용(家用)토록 함은 물론
한계를 넘는 또 다른 생명과학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한
우리 시대 가장 가치 있는 기념비적 위업의 하나!

곁에 두는, 가장 지혜로운 주치의!
난치·불치의 벽을 혁파해온 위대한 명의!!

1권 약초 편
그 자체로 혹은 응용으로, 수많은 치료법 및 신약의 획기적 질료가 되어온 1천 종류 약초의 사진 및 생태·특징·채취취급요령·효능·성미·독성·사용량·사용부위·범위·용법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 정리, 완성도 높은 본초학 도감으로 꾸몄으며 각 권과 연계 활용케 함.

2권 처방 편
각 질병의 원인·증상 설명과 함께 의료문명의 지향점에 이미 놀라우리만치 닿아있는 이상적 치료법으로 구명(究明)되며 마침내 인류의학의 희망으로 부활한 전통민간요법 질병치유사상 최고의 처방을 약재별로 제시(1천여 질병, 22,600여 처방), 택해 쓰도록 함으로써 만인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성을 아울러 꾀함.

3권 조제 편
양생 및 병리 연구의 선각자들을 비롯 민가, 의가(醫家), 사찰 등에 비전되며 체험자에게 균형잡힌 건강장수를 실현시켜온 각종 주침(약술)·탕전·약차·식이 요법 등, 재료별 약리성에 근거한 정교한 생리활성 과학이었던 다양한 응용 치유법의 진수 2,600여종 조제법 및 비방 총망라.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세요. 천금으로도 살수 없는 가치를 발합니다"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국내 최초의 제대로 된 방대한 본초학 교본이자 한의사들이 토종약초를 이용해 난치병 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 –한방과 건강–
▶"그의 익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명실상부한 전통약초요법대전으로서 민간이나 학계에서 그 활용가치가 지대할 것이다"
–장일무(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방방곡곡을 도는 끝없는 채집 기록 비교분석 검증…한 연구가의 60여년에 걸친 비범한 집념과 공력의 산물인 본 대전은 인류 숙원인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약판이라 할 만 하며, 향후 또 다른 질병치료 및 신약·기능식품 등의 개발에 매우 요긴한 단초가 될 것" –김남훈(한국의약신문 발행인)–
▶"생명을 낳고 문명을 기른 자연과 전통이란 근원에서 해법 또한 찾아낸 괄목할 모범사례로서, 약용 동·식물·광물 등 주변의 천연소재에 내재된 각각의 독특한 약리성을 이용한 뛰어난 예방·치료법을 일반 가정에서도 폭넓게 공유토록한 점, 정밀한 기술적 검증이 가능해진 현대에 이르러 오히려 인류가 보완을 거듭해 도출한 최선안에 이미 선착(先着)한 점단적 의료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전통 천연물요법들이 한 불굴의 정신에 의해 정립됨으로써 작금의 현대의학이 처한 난제(難題)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대체보완의학 연구 등에 기여도가 클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 널리 이로울 성과물" –조호현(출판인)–
▶"고도의 면밀함을 요하는 참으로 지난했을 대역사(大役事), 아마도 이후 어떤 노작(勞作)도 이에 미치기는 힘들 것" –김형석(약초연구가)–
▶"쉽고 간단한 처방이면서도 경이로운 치유력을 보이는 천혜(天惠)의 의술, 그 소박한 그러나 위대한 생명활성 지혜들을 완전 복원해냄에 따라 건강 장수하는 이상적인 삶의 보편화를 우리 당대로 앞당기는 일대 전기가 될 것" –전통의학신문–
▶"천하의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님을 전통민간요법은 증명하고 있다" –권혁세(저자)–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검토 후 송금하시면 됨.('알라딘'에서도 판매 중)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